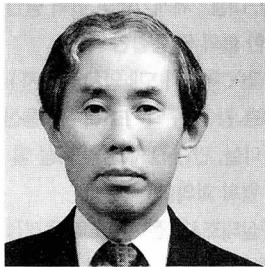


정보와 윤리

“건전한 발전위한 최소한의 윤리적기준 필요”



손 봉 호 서울대학교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요즘 인류문명이 그 모습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환경오염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다.

환경오염은 인간의 생물학적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그들의 행위와 각종 제도에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발달시키든지, 아니면 소비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절제문화를 만들어야지 그 외에 문명을 지금의 모습으로 유지하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문명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환경오염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문명은 본래 육체나 천연자원같은 자연적인 것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여 창조되고 변화되며 그

창조와 변화의 정도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커진다. 그런데 생각의 내용이 비트(Bits)로 표현되어 객관화된 것을 정보라 부른다. 정보통신기술의 장족적인 발전은 사람의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축적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넓게 전달할 수 있게 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책, 신문, 잡지, 도서관, 녹음기, 사진기, 비디오등을 점점 불필요하게 하고 기억력 좋은 두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는 정보를 활용할 줄 알고 유용한 정보를 창조할 수 있는 두뇌가 경쟁의 승리자로 부상할 것이다.

문명의 모습이 바뀌지면 사람의 모습도 바뀌진다. 사람은 문명을 만들지만, 동시에 문명에 의하여 변한다. 원시인과 현대인이 다른 것은 그동안 몸의 구조나 모습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현

대인이 되고, 한국적 정보를 받아 들이는 사람은 한국인이 된다. 고상한 말만 듣고 좋은 글만 읽는 사람의 마음은 고상해지고, 천덕스러운 글이나 더러운 그림만 보는 사람의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속에 가득차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게 마련이다. 받아들이고 가득 채우고 쏟아내는 정보가 그 사람의 됃됨이와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정보에도 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비윤리적인 정보는 정보의 수용자에게 직접 혹은 간접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그 사람을 비도덕적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하는 것이다.

윤리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행동하도록 하는 규범을 뜻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정의가 그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윤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하는 사람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강도를 만나 돈을 잃고 상처를 입거나 강간을 당해보면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회의 최강자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변태적 정신병자외에는 아무도 감히 윤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리란 고집불통 노인들의 케케묵은 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 해를 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데 필수적인 행동규범이다.

오늘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가 아무에게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같은 것은 불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정보 제공자가 항상 정직하고 건전한 정보만 제공하던지 아니면 정보 수용자가 옳은 정보와 옳지 못한 정보를 잘 구별할 수 있어서 윤리위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될만큼 성숙한 경우다.

그러나 만약 어떤 잘못된 정보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도록 만든다면 사회는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들어 매우 음란한 그림이나 이야기가 통신망에 올라서 청소년들이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웃집 소녀를 강간한다면 그 정보는 그 소녀와 그 강간범의 일생을 망치는데 원인의 중요한 일부를 제공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폭탄제조법을 통신망에 올렸기 때문에 테러분자들이 손쉽게 폭탄을 제조하여 무수한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면 그런 정보를 허용한 사회는 결코 책임있는 사회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딸이나 누이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상상해 보고, 자신이나 가족이 테러분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거나 장애자가 되었다고 상상해 본 다음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보의 윤리적 규제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보와 성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성인들의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폭탄 제조법이나 고의적인 폭력선동같이 극단적인 정보나 허위정보외에는 제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어떤 정보는 청소년들에게 전혀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확실히 마련될 수만 있다면 윤리위원회는 필요없거나 그 임무가 비교적 가볍

문명의 모습이 바뀌면 사람의 모습도 바뀌진다. 사람은 문명을 만들지만 동시에 문명에 의하여 변한다. 때문에 오늘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도 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청소년들은 합리적 판단과 절제능력에 대해서 어른들보다 약하고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흥분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는 그들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비윤리적인 정보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청소년에 무관심한 사회요,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회일 것이다.

미국같이 개인의 자유를 거의 절대시하는 사회에서도 최근 정보에 대한 윤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정보가 청소년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만약 그런 기준과 규제가 없으면 정보제공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선정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보산업 전체가 사회의 지탄과 불신을 받을 것이다.

선정적인 정보는 우선은 많은 관심을 끌고 그 때문에 제공자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정보제공자 전체가 사회의 비판과 불신을 받아 손해를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엄청난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한계를 설정해 놓고 그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보제공자에게도 편리하고 유익하다.

물론 너무 엄격한 한계를 설정하고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다윈주의 시대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양식에 비추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비도덕적인 정보는 규제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음란성이나 폭력성이나 하는 것은 물론 상당할 정도로 주관적이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많이 본 사람들에게는 어지간한 것은 아무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할 것이고 그런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도 큰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어떤 선도 긋지않은 채 모든 사람이 음란정보에 익숙해져서 아무 자극도 받지 않도록 기다릴 수도 없다.

그동안 무수한 희생자를 배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평균적 양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절한 선을 긋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정보망을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들의 판단기준은 곧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내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가 보거나 들어도 별 문제가 없는가?”일 것이다.

자기 자식에게는 금지하면서도 다른 청소년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비양심적이다.

상당할 정도로 주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 심의위원들이 내린 판단의 평균은 우리 사회의 평가를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

잘못된 정보가
청소년에게 미칠
해악을 생각해
본다면 정보에
대한 윤리적
규제는 필요하다.
즉 어느정도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